

##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 1. 기본정보

이름	최하*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마닐라
파견대학	라살아라네타대학	기간	2017. 7. 22(토) ~ 8. 19(토)

###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학교는 공항에서 약1시간정도 떨어진 말라본에 위치해 있습니다. 학교 시설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대학보다는 떨어지지만 생활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학교 내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수업은 맨투맨 수업은 speaking, writing, 발음 수업으로 총 3시간, 대그룹(BGC)수업은 토익스피킹, 리스닝, 멀티미디어 수업으로 총3시간, 소그룹(SGC)은 스피킹 수업 2시간으로 총 8시간 수업을 듣습니다. 중간에 점심시간 빼고 2시간 공강이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아침8시 공강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반은 가서 처음에 레벨테스트를 받는데 그 결과대로 반이 나뉘 집니다. 수업은 교재로 수업하거나 선생님과 대화를 하거나 했습니다. 선생님들 발음은 제가 느끼기에는 대체로 좋았습니다. 몇몇 선생님들이 필리핀 억양이 살짝 있었지만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으로 발표하는 수업이 있기 때문에 노트북은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노트도 1권 정도는 준비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영어 에세이를 1~2개 정도 써야하는데 그 때 방에 와이파이가 안 터지면 사전 쓸 때 진짜 답답합니다. 오프라인 사전을 미리 설치해가거나 전자사전을 하나 가져오시는 걸 추천합니다.</p>
Activity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p> <p>저는 민도르 섬만 참여했습니다. 오고가는 교통비와 숙박비는 학교에서 제공해주었고 액티비티로만 총 1380 페소를 썼습니다. 민도르를 가게 된</p>

	<p>다면 수상 액티비티를 하기 때문에 수영복은 반드시 챙겨가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대그룹 수업시간에 하는 마닐라 투어도 학교에서 500페소 지원해줬습니다. 그거는 수업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빠질 수 없습니다. 저는 마닐라 투어때 리잘파크와 산티아고, 박물관을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고싶은 곳을 대그룹 내에서 정하는데 대부분이 MOA로 갑니다. 저희 대그룹도 MOA로 가서 쇼핑물 구경을 했습니다.</p>
--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필리핀에서 여름은 우기라 비가 갑자기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방에 넣을 수 있는 작은 우산을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학교랑 호스텔 내는 가드들이 항상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하지만 학교 뒤에 있는 시장이나 마닐라 시내에서는 몸 조심하고 소지품을 잘 챙겨야합니다. 택시는 우버나 그랩이 안전하며 길에 다니는 택시 잡아서 타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학교 밖을 다닐 때에는 항상 3명 이상 무리지어서 다니는 것이 안전합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 0 ) 홈스테이 ( ) 외부 숙소( ) 기타( )</p> <p>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숙소는 솔직히 엄청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신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좋은 편은 아니었으며 어떤 방은 가끔씩 바퀴벌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방은 다른방에 비해 와이파이가 느렸으며 설상가상으로 데이터마저 터지지 않아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안전 면에서는 가드들이 항상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안전했습니다.</p>
식사	<p>학교식당( 0 ) 홈스테이 ( ) 외부식당 ( 0 )기타( )</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주로 호스텔 밥을 먹었으며 주말에는 밖에 나가서 외식을 했습니다. 호스텔 밥은 진짜 맛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국이랑 나물이 진짜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부 식당에서 먹었던 음식들은 대부분이 찐습니다. 필리핀이 더운 나라기 때문에 음식이 쉽게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금을 많이 넣는다고 원어민 선생님이 말씀해주셨는데 그래도 너무 짜서 힘들었습니다.</p>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
	학교랑 호스텔은 바로 마주보고 있었기 때문에 통학시간이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내에서 교통편을 이용할 때는 주로 그랩이나 우버를 이용했습니다. 두 어플 다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가격과 기사님들이 뜨기 때문에 바가지 당할 일 없고 안전합니다. 택시를 탈때는 항상 조심해야 하고 3명 이상끼리 타는 것을 추천합니다.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유학허가증(SSP), 기숙사보증금, 여행자보험	688,710	출국 전 사전 납부
생활비	450달러(약50만원)	
합계	약120만원	

#### 5. 출국 전 준비사항

<p>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p> <p>환전은 한국에서 달러로 바꾼 뒤 필리핀에서 페소로 바꾸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생활하는데 50만원이 진짜 충분했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사고 싶은 것도 다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돈 쓰는 것은 자기 나름이기 때문에 자신의 평소 돈쓰는 습관을 잘 생각해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시간 끝나고 혹은 주말에 어딘가 놀러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미리 한국에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 인터넷이 너무 느려서 검색하는게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호스텔과 교실에서 에어컨을 엄청 틀기 때문에 긴 겉옷 반드시! 꼭! 챙겨가세요. 저는 안 챙겨갔다가 4주 동안 감기가 안 나았습니다.. 감기약은 필수로 챙겨가세요. 그리고 물갈이를 할 수 있습니다. 3명 중 1명씩은 물갈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갈이 시 먹을 약도 꼭 챙겨가세요. 필리핀에서 선생님들과 수업하고 마지막 주에 선물을 드립니다. 안드리고 싶으면 안드려도 상관 없지만드리고 싶다면 한국에서 사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국 과자나 화장품, 필기구 같은 것을 미리 사가서 선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캐리어는 한국에서 갈 때 나중에 사올 기념품을 담을 공간 때문에 살짝 비워진 상태로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영어공부를 조금이라도 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아예 공부 안하고 갔더니 선생님과 소통하는데 단어 부분에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단어공부를 조금이라도 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p>
--

##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솔직히 최종 합격하고 며칠 뒤 필리핀에서 사고가 터져서 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환불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예치금 20만원이 반환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강제로 끌려가듯이 갔습니다. 하지만 안 갔다면 후회 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필리핀 생활이 너무 즐겁고 좋았습니다. 4주가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기에는 매우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영어로 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매일 8시간동안 수업하는 것이 힘들기는 했지만 수업 끝나고 하이퍼마켓에 가고 가끔씩 저녁에 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SM North, 보니파시오, 베니스, 그린힐스, MOA 등 필리핀에서 유명한 곳들은 다 가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음식점들은 다 가보려고 했습니다. 제리스 그릴, 바이킹, 실버크라운, 트래블버거, 줄리비, 팀호완 등등... 그 중에서 가격대비 가장 맛있고 좋았던 곳은 바이킹입니다. 바이킹은 MOA랑 SM North 두군데에 있는데 저는 North에 있는 바이킹에 갔습니다. 사전예약은 필수이며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약 안하면 진짜 긴 줄을 기다려야 합니다. 바이킹은 약800페소, 우리나라 돈으로 2만원 안 되는 가격인데 진짜 퀄리티는 우리나라 호텔 뷔페 못지않았습니다. 꼭 먹으러 가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보냈던 4주가 아깝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습니다. 4주 동안 너무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이번 단기어학연수를 계기로 캐나다 교환학생 준비를 열심히 할 것 입니다. 만약 주변 지인이 가고 싶다고 한다면 저는 가면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적극 추천할 것 같습니다!

##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졸업식 끝나고 다같이 학교앞에서</p>	<p>마닐라 투어 대그룹 사진</p>



MOA



리잘 파크 가는길



teacher Fav랑



베니스 몰